

주요 경쟁시장 관광정책동향

제19-1호(2019.04.01)



제주관광공사
JEJU TOURISM ORGANIZATION

문의 :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

목 차

I. 중화권시장	1
1-1. 중국	1
1-2. 대만	2
1-3. 홍콩	2
II. 일본시장	3
III. 동남아시아	4
3-1. 베트남	4
3-2. 인도네시아	4
3-3. 싱가포르	5
3-4. 말레이시아	6
3-5. 태국	6

I. 중화권시장

1-1. 중국

○ 베이징(北京)시 「야간경제 육성(안)」 발표

- 야간경제(Night Time Economy)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쇼핑, 요식, 관광, 미용, 레저, 교육,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비활동을 의미
- 소비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야간경제 육성(안) 발표,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콘텐츠를 적극 육성하고자 함
 - ※ 2019년 정월 대보름을 맞아, 고궁박물관(故宫博物院, 자금성)을 대중에게 개방한지 94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야간 개방을 실시한 바 있음
-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(上海)시, 텐진(天津)시, 쓰촨성(四川省) 청두(成都)시도 야간경제 육성을 발표, 야간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

<출처 : 2019 베이징시업무보고>

○ 중국문화관광부 「관광서비스 개선 계획에 관한 지도의견」 발표

- 여행시장에 존재하는 허위·과장 광고, 강제쇼핑, 위생안전 등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산업의 질적성장 달성이 주요 목적임
- 관광지과 여행사 서비스 수준 제고, 관광지 숙박 및 온라인 관광 경영 서비스 규범화, 가이드 및 관광객 인솔자 능력제고, 관광신용체계 구축,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, 관광산업 질적성장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

<출처 : 중국문화관광부, 01/16>

○ 중국문화관광부 「국가전지역관광시범구」 선정을 위한 평가인증 실시

- 중국 전 지역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「국가전지역관광시범구(国家全域旅游示范区)」를 조성하기로 하고 2015년도부터 이를 위한 준비를 진행,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함
- 중국문화관광부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「국가전지역관광시범구」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함
- 「국가전지역관광시범구」로 선정될 시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과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

<출처 : 중국문화관광부, 03/01>

○ 「5G 스마트 고궁」 구축 위해 고궁박물관과 화웨이 손잡아

- 고궁박물관과 화웨이는 국가의 5G 선진응용시범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여 “스마트 고궁”을 조성하기로 협의함

<출처 : 평향왕, 03/15>

1-2. 대만

○ 2019년 관광정책

- 시장 다변화 추진, 이를 위해 △동북아, 홍콩, 마카오, 미국 등 주력시장, 동남아, 대양주, 남아시아 등 신(新)시장, 유럽, 러시아 등 잠재시장 및 중국 대륙 시장 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, △지방과 협력하여 특색 있는 관광상품 및 사계절에 맞는 국제적인 축제를 개발하여 대만 중남동부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추진, △잠재력이 큰 크루즈, 마이스(인센티브), 무슬림, 전세기, 수학여행 등 특수목적관광(SIT)을 강화
- 관광산업의 브랜드화, 국제화를 위해 평가 메커니즘 및 전문가지도팀을 도입
- 관광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령 및 규범의 내용을 철저히

분석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산업 분야의 청년창업을 적극 장려, 등급별 호텔평가제도와 호텔예약규범을 수정

- 신시장 및 잠재시장 개척을 위해 핵심인재 육성 및 소수언어 가이드 교육을 강화
- 관광빅데이터 자료실을 구축하고 관광산업의 정보네트워크를 전면 재조정하여 관광객 여행행태 분석을 강화
- 투어버스, 관광전세버스, 타이완 패스(Pass) 등 서비스 품질 개선 및 「대만현대관광여행」 포럼을 실시
- 고전적인 특색을 갖춘 40개 소도시를 중심으로 체험관광을 실시하고 관광객에게 우호적인 관광환경을 조성

<출처 : 교통부관광국>

1-3. 홍콩

- 2018년 홍콩관광청 숙박관광객 프로모션 집중적 실시 결과 숙박관광이 총 2,926만 명으로 전년 대비 4.9% 증가
- 다양한 시장과 안정적 미국시장을 연결하는 항공좌석 증가 등 장거리 실적 호조로 2.8% 증가

- 달러가치에 대한 현금가치 하락과 경쟁지간 경쟁 심화로 단거리 시장이 타격을 받긴 하였으나 일본(4.8%), 태국(4.5%), 필리핀(0.6%) 시장에서 성장을 기록
- 홍콩-인도 신규 노선과 블라디보스톡 시장 개발로 신규시장 0.7% 소폭 증가
- 중국 대륙의 경우 7.4% 증가, 광저우(广州)-선전(深圳)-홍콩 고속철도, 홍콩-주하이(珠海)-마카오 대교 개통에 힘입어 2017년의 성장세로 회복

<출처 : 홍콩관광청. 01/31>

○ 홍콩관광청 신임 회장 선임

- 홍콩 정부는 3월 1일 Dr. Peng Yiu-kai를 홍콩관광청 회장 Dr. Peter Lam Kinngok의 후임으로 임명
-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까지임

<출처 : 홍콩관광청. 03/01>

II. 일본시장

○ 방문객 출국세(1000엔) 도입

- 일본관광공사(JNTO)에 따르면, 항

공과 해상으로 일본을 떠나는 모든 방문객에게 1월 7일부터 출국세 1000엔 부과를 도입함

- 이 출국세는 관광정보 제공편의증진을 위해 쓰이며, 이를 통해 방문객에게 편안한 관광환경을 조성
- 만 2세 미만의 유아와 당일방문객(24시간 미만)의 경우 출국세를 면제함

<출처 : www.independent.co.uk. 01/10>

○ 「지속 가능한 관광」 심포지엄 개최 (UNWTO)

- 나라현은 “관광기반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전망”을 주제로 2월 4일과 5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, 스페인, 태국, 대만, 중앙아시아 5개국(지역) 등의 국가에서 참석
- 지역의 전통산업이 지역 관광자원으로 재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, 지역전통을 보전하고 지역경제의 미래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으로, 지역산업 연계 체험관광 상품개발 등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 제안
- 예를 들어, 나라현의 지역산업인 주조, 갈분제조 공장과 삶의 터전을 공개하고, 기타규슈시의 산업과 문화를 관광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강화

<출처 : 일본관광청. 02/18>

○ 「최첨단 관광 콘텐츠 인큐베이터 사업」 성과보고회 개최

- 일본관광청에서는 관광자원과 콘텐츠 개발을 위해 「최첨단 관광 콘텐츠 인큐베이터 사업」에서 16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- 성과보고 분야는 최첨단 ICT(AR,VR)을 이용한 관광사업, 자연체험형 관광사업, 비치리조트를 이용한 관광사업, 야간관광자원개발, 미용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관광자원개발, 축제이용 관광사업임

<출처 : 일본관광청, 02/26>

○ 지역관광자원 다국어 해설 정비 사업 추진

- 일본관광청은 지역관광자원의 알기 쉽고, 매력적인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한 다국어 해설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
- 지역공모를 통해 42개 지역을 선정하였고, 3월 23일부터 5월 14일에 걸쳐 사업을 추진

<출처 : 일본관광청, 03/01>

III. 동남아시아

3-1. 베트남

○ 여행사기 기승, 단속 강화 추진

- 새해와 짧은 휴가철을 맞아 방문하는 관광객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, 여행사기 등으로 관광객의 피해가 속출
- 베트남관광청에 의하면, 이 같은 피해 등으로 인해 베트남 재방문율에 악영향을 미치며, 80%가 재방문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
- 베트남관광청은 이에 따라, 여행사기에 대한 단속강화와 업계에 행동강령을 배포함으로써 체질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임

<출처 : Viet Nam News, 02/23>

3-2. 인도네시아

○ 2019년 4월, 인도네시아 선거

- 4월 17일 인도네시아 대선과 총선이 처음으로 동시에 실시
- 현 인도네시아 ‘조코 위도도’ 대통령의 집권 유지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인물 등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지 분위기 연일 고조
- 인도네시아의 경제 부흥을 위한 성향은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,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

<출처 : TheJakartaPost, 03/08>

○ 인도네시아 관광 세계 평균보다 두 배 빠른 성장

- 인도네시아의 관광산업은 2018년 7.8% 성장하여 전 세계 평균인 3.9%의 두 배, 전년대비 2.7%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Travel & Tourism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약1,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, 동남아에서 태국,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 관광대국으로 성장
- 2019년 GDP 기여도는 5.2% 성장할 것으로 기대

<출처 : WTTC, 03/20>

○ 인도네시아 관광 예측과 전망

- 인도네시아 관광객 수는 2019년 1월, 전년대비 5.22% 증가한 116만 명으로 집계
- 주요 관광지 순위로는 1위가 발리, 2위 자카르타, 3위 바탐으로 파악되었으며, 발리의 경우 전체 관광객의 약 40%를 상회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

<출처 : tradingeconomics, 03/21>

3-3. 싱가포르

○ 중국인 관광객 겨냥 캐시리스(Cashless) 센토사 런칭

- 센토사개발공사(SDC), 싱가포르관광청, 알리페이(Ali pay)가 함께 센토사 섬 멤버십 프로그램(Sentosa Islander Membership programme) 런칭
- 스마트 페이에 익숙한 중국관광객을 겨냥
- 알리페이의 스마트 지불 솔루션(smart lifestyle wallet) 활용하여 센토사 섬 내 상점 10곳 중 7곳 이용 가능

<출처 : 싱가포르관광청, 01/23>

○ 싱가포르관광청, 쇼핑천국에서 라이프스타일 중심지로의 전환을 위해 오차드 로드 개선 계획 발표

- 싱가포르관광청, 도시개발청, 국립공원위원회 공동으로 싱가포르 유명 쇼핑가인 오차드 로드에 대한 개선 계획을 발표
- 라이프스타일 종착지와 오차드(과수원) 되살리기('The Lifestyle Destination' and 'Bring Back the Orchard')가 주요 쟁점

<출처 : 싱가포르관광청, 01/30>

○ 싱가포르관광청, 부산과 MOC 체결

- 2019년 2월 20일, 부산시와 싱가포르관광청 협조양해각서(Memorandum of Cooperation) 체결

- 부산과 싱가포르 두 지역의 인지도를 강화하여 양자 간 관광트래픽 확대
- 양자 간 마케팅·홍보 협조체제와 산관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관광마케팅 활동을 추진
- 질적 관광을 위해 관광정책 우수 사례 공유

<출처 : 싱가포르관광청, 02/22>

3-4. 말레이시아

- 말레이시아관광청, 말레이시아공항과 MOU 체결
 - 국제공동개발관광프로그램 (Joint International Development Tourism Programme; JIDTP)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말레이시아관광청과 말레이시아공항 간 MOU 체결
 - 본 MOU를 통해 국제관광홍보 등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 - 항공사 간 공동협력, 신규취항 및 전세기 운항, 틈새관광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
 - 해당 프로그램 관련하여 양측 각각 1천만 링깃(약 245만 달러) 투자 예정

<출처 : 말레이시아관광청, 01/29>

3-5. 태국

- 해양재활용(Upcycling the Oceans) 정책 지속 추진
 - 지난 2년간 해양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을 재가공하여 셔츠, 가방, 신발 등의 제품을 만들어 왔음
 - 위라삭(Weerasak) 태국 문체부장관은 올해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

<출처 : tatnews, 03/08>

- 여행관광정보 제공 서비스 모바일 앱 TagThai 런칭
 - TagThai는 주정부 및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제작한 관광정보 제공 디지털 플랫폼으로, 4월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
 - TagThai은 영어, 태국어, 만다린어로 제공하며, 6월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어권을 확대할 예정임

<출처 : bangkokpost, 03/04>

- 태국관광청-그랩택시(Grab Taxi) 택시 이동경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을 위한 MOU 체결
 - 스마트 데이터 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동경로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국가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통찰력 제공

<출처 : grab, 02/26>